

# 네일케어 무료 매장 연다

### 익산시·유관기관, 미취업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협약 익산역 '섬섬옥수'·시청 두곳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

익산시가 미취업 장애인들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주도해 화제이다.

시는 28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주)SR,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미취업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해 향후 일반시장으로 취·창업 유도를 수 있는 '장애인 네일케어(아트) 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한국철도공사(김광모 전북본부장), 한국철도시설공단(장형식 호남본부장), (주)SR(박정우 기획조정실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김정대 전북지사장) 등 협력기관 대표들이 참석하여 장애인 네일케어(아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 인건비를 지급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익산역 네일케어(아트) 사업을 위한 공간과 설비를 제공·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익산역 사업공간에 대한 사용승인을, (주)SR은 재료비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청각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 네일케어(아트)는 익산역 동측 출입문 앞 '섬섬옥수'와 익산시청(종합민원관) 두 곳의 사업장에서 6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두 사업장에는 장애인 고용 공단에서 네일 케어(아트) 전문교육을 이수한 여성 장애인이 각각 2명씩 배치되어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손톱 관리, 영양 컬러 등 네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30~50분가량 소요되는 서비스 시간을 고려해 익산역점(섬섬옥수)은 당일 열차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메신저 앱 서비스 "카카오프러스친구 섬섬옥수(익산역점)"를 통해 사전 예약을 제공하여 편리함을 더했다.

익산 시청장은 시민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서비스 제공일 1일 전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물론 두 곳 모두 현장 사정에 따라 당일 접수도 가능하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를 확보하고 취·창업을 위한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약에 동참하여 주신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장애인 네일케어(아트) 사업장이 익산 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함터로 자리 매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가 최근 도시농업 육성사업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새싹채소 및 반려 식물 가꾸기 원예치료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자 등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있다.

## 군산시 "자가격리자 원예치료"

### 새싹채소 재배 키트·반려 식물·메시지 카드 등 전달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가 최근 도시농업 육성사업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새싹채소 및 반려 식물 가꾸기 원예치료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자 등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있다.

현재 군산시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3~5명의 신규 자가격리자가 매일 추가되고 있으며, 이들은 격리기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고립감으로 인한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쉽게 증폭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 이러한 시민들을 위해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보건소와 협력해 실내에서 직접 키울 수 있는 새싹채소 재배 키트와 반려 식물 등을 메시지 카드와 함께 전달, 내가 직접 심고 기르고 식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실내 원예체험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 치유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도시민들과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과 함께 실내원예 활동 및 도시 텃밭 가꾸기를 통한 심리치료, 건강증진 등의 공동 가꾸기 원예치료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자 등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있다. 특히 새싹채소는 일주일이면 식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랄 수 있고 실내원예 및 치유농업을 위한 연구에서도 원예치료 및 건강증진에 큰 효과를 보여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내에 활용하기에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지원과 문영엽 과장은 "이번 원예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힘들고 지친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군산시가 시민들과 함께하고 함께 이겨 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다"라며 "도시민들이 농업과 더 가까워지고 더 건강해지도록 지원하는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도시민들과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과 함께 실내원예 활동 및 도시 텃밭 가꾸기를 통한 심리치료, 건강증진 등의 공동 가꾸기 원예치료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자 등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있다. 특히 새싹채소는 일주일이면 식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랄 수 있고 실내원예 및 치유농업을 위한 연구에서도 원예치료 및 건강증진에 큰 효과를 보여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내에 활용하기에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지원과 문영엽 과장은 "이번 원예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힘들고 지친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군산시가 시민들과 함께하고 함께 이겨 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다"라며 "도시민들이 농업과 더 가까워지고 더 건강해지도록 지원하는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도내 최초 감염병 환자용 음압 특수 구급차 도입

### 병원체 전파 차단 기능 보유

익산시 보건소에서는 도내 최초로 감염병 환자를 이송하고 검체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음압 특수 구급차를 구입해 2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병원체 전파를 차단하는 기능을 보유한 음압 특수 구급차를 구입해 코로나19는 물론 다른 향후 감염병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차량 내부에는 음압 시스템, 해파 필터를 탑재한 음압 공조기 및 배출시설, 음압 관련 각종 장비 및 알람 장치, 고성능 흡인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0.1μm크기의 미립자를 99.99% 제거하는 초고성능 공기정화필터가



감염병 환자용 음압 특수 구급차

차, 고성능 흡인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0.1μm크기의 미립자를 99.99% 제거하는 초고성능 공기정화필터가

내장되어 있어 환자실 공기를 정화해 외부로 내보내고, 내부를 대기압보다 낮게 조성해 바이러스의 외부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환자 감시 장치 등 환자 평가용 의료 장비, 기도 확보 유지 등 응급처치용 의료장비, 응급 의료 정보 통신 장비 등이 탑재되어 있어 위급한 환자의 끝없는 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병란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정부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시 이를 가장 먼저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영주권자도 지급 검토

익산시가 지난 4월 도내 최초 결혼 이민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해 이어 도내 시 지역 처음으로 영주권자에게도 지급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익산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발의로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익산시는 소요 예산 4000만원을 오는 6월에 열리는 3차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이 익산시 의회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청 방법과 일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르면 관내 주소지(4월 9일 00시 기준)를 둔 영주권자 400여명에 대해 익산 시민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씩 무기명 선불 카드로 충전 지급안을 구상중이며 내달 초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4월부터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포함 28만4526명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

28일 현재 27만190명에게 전체 95%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는 이를 계기로 지역에 터를 잡고 세금 납부 및 노동 활동 등 지역 사회에 공헌해 온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 대해 차별 없는 정책을 펼치며 도내에서 한발 앞선 적극 행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 사회재난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할 것이나, 처음 시행하다보니 다소 지급이 늦은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우리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항상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군산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하세요"

군산시가 군 복무 중 사망사고로 슬픔에 차있는 유가족들을 위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정 접수 마감인 오는 9월 13일로 채 5개월이 남지 않은 만큼 시에서는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뿐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에 대한 위원회 진정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중대한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준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시민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월명평생학습센터 재개강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월명평생학습센터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던 상반기 정규 프로그램 운영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오는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12개 강좌 172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당초 16주 예정됐으나 운영기간 변경을 통해 오는 6월 8일부터 8월 26일까지 12주로 단축 운영된다.

이번 월명평생학습센터에서는 △재능이 넘치는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랑수아 자수, △천연 재료를 활용한 손소독제 등 건강을 위한 천연제품 만들기, △코로나19로 지친 감성을 깨워줄 트롯 통기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생활그림 민화, △팝송영어, △예술사진, △시낭송, △하모니카, △한국화, △캘리그래피, △서예, △바리스타 드림 등 인문교양, 문화예술,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등 건강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신청은 선착순 방문 및 인터넷(군산시 평생학습정보망)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3만원으로 재료비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군산시 설치 확대지원

군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개선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량은 300대로 사업비는 국비 3600만원 포함 6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함에 따라 추가 사업을 진행하게 됐으며, 오는 6월 3일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당해 연도 가정용 친환경(저녹스)보일러 설치·교체하는 군산시 주택소유주 및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이며 1대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열람 가능하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